



## “재첩 사이소!”

## 동천 조개잡이배 기억하십니까



김정희의 스케치로 읽는 풍경

6·25전쟁 이후 문헌통에 피난민들이 정착하면서 생계유지를 위하여 배를 마련하여 연합철강(현 유니온스틸) 앞이나 그보다 좀 더 먼 바다로 나가 조개 채취를 하였다. 1960년대만 해도 이 조개잡이 배들은 동천 하류인 당시의 대산양조 공장(현

부산फल클럽) 뒤편의 동천가에 상시 30여척 이상 정박해 있었다.

당시 조개잡이 배는 뿔단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두 종류가 있었다. 배의 크기는 길이 5m 이내이고, 폭은 약 2m 이내의 작은 폭산이었다. 배 뒷전의 노를 저어야 했으므로 육체적 노동인데도 배를 저어 앞바다로 나갔다. 조개잡이 배를 묶어놓는 광상시 정박지는 조수간만에도 물에 잠기지 않도록 높게 걸쳐둔 좁고 긴 형태의 외나무다리가 전부였다. 이 나무다리는 약한 뽕 정도 되는 널빤지 두 개를 나란히 잇대어 길게 뻗어 있었다. 조개를 긁어 올리는 도구는 지역자 형태로 밭을 가는 쇠스랑처럼 생긴 ‘갈꾸리’가 전부였다. 밭물

만한 조개가 빠지지 않도록 철망을 양 옆과 뒷면에 용접한 이 갈꾸리는 호미자투처럼 자루를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었다. 바다 밑바닥까지 갈꾸리를 내려서 갯벌 속에 있는 조개를 끌어 올려야 했기 때문에 갈꾸리의 짧은 습배에 끼운 대나무는 썰기를 끼워 매우 단단하게 두드려 박았다. 이 갈꾸리를 바다 밑바닥까지 던져 갯벌을 긁어 조개를 끌어 올렸다. 조개잡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잡는 날은 밀가루 포대로 2포대 정도까지 되었는데, 이것을 손으로 일일이 꺼서 조갯살만 재래시상 상인에게 넘기거나 직접 시장에 나가 팔았다.

1950년대만 해도 문헌4등을 끼고 흐르는 동천은 매우 맑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했

며, 바다에서 가끔 고래가 올라오기도 했다. 또 그 당시의 동천에는 수변 위로 송어가 팔쩍팔쩍 뛰어오르고, 민물장어 등의 물고기를 낚기도 하였다. 그만큼 동천의 수질이 맑았으며 당시의 앞바다 역시 청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한 조개는 품질이 좋았다. 1960년대 들어서도 여름이 되면 이곳 동천 하류에서 아동들이 가끔 먹을 감곤 했으나,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물이 나빠져 먹을 감지 못하게 되었다. 조개잡이 배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중반 무렵부터이다. 동천 하류 끝단인 동천삼거리에 총연장 72.5m, 폭폭 21.6m의 부두교가 1978년 12월 5일 착공하여 1980년 2월 건설되고, 우암동 등지에서 나오는 차량이 1, 2, 3부두 등지로 향하는 좌회전도로가 개설되면서 조개잡이 배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남구 향토지 ‘내고장 부산남구 그 시간의 숨과 결을 느끼다’ 서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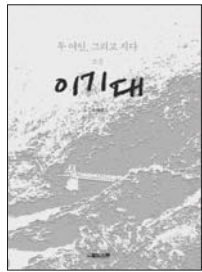
## 두 기생의 순절 ‘소설 이기대’ 첫 출간

임진왜란 당시 일본 적장을 안고 바다에 뛰어들어 두 기생에서 유래되었다는 남구의 이기대. 신문, 방송 심지어 영화에까지 곧잘 등장해 익히 잘 알고 있는 대목이다. 논개에 비견될 이 이야기는 그러나 그저 입에서 입으로 구전된 설화로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두 기생의 의로운 희생과 절개가 설화가 아닌 정설로 단정 짓는 소설이 나왔다.

남구 지역 작가 광태옥 씨가 이기대에 관한 첫 장편소설을 출간했다. 또 소설의

출판을 남구에 기반을 둔 주간 신문사가 맡아 화제가 되고 있다.

‘소설 이기대’는 이기대의 원형을 충실하게 접근하기 위해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작품 곳곳에 마치 논문처럼 주석과 각주까지 달아가며 사료적 근근이 제시하고 있다. 소설 배경이 남구 일원인 관계로 낯익은 지명들과 현존하는 지역 주민들의 실명도 등장한다. 특히 남구 토박이인 왕정문 향토사 연구위원과 공기화 전 부산고대 교수가 직접 주요 인물로 등장해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300페이지 분량의 소설은 현재와 과거, 때로 상상과 개연성의 경계를 넘나들며 독자를 임진왜란 당시 두 기생의 행적을 따라가게 만든다. 작가적 상상만 요고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책을

만든 야고 역할은 하고 있다. 한편 책을 출판한 오륙도신문은 소설을 스토리텔링 원천으로 연극, 뮤지컬 등 남구의 문화원형을 찾는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소설 구입 및 문의 ☎622-4075

### 오륙도연극단원 모집

지역의 문화발전과 주민의 예술역량을 높이기 위해 오륙도연극단이 창단됩니다. 이에 연극에 대한 열정과 지역의 문화원형 찾기에 관심을 가진 주민을 대상으로 단원을 모집합니다. 지역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대상 : 연극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부산시민 누구나(남구민 우선 모집)
- 기간 : 2014년 10월 23일부터 계속
- 문의·접수 : 오륙도신문(622-4075) ordnews@hanmail.net

### ■ 남구를 빛낸 문화·예술인 ⑥ 사진작가 최민식

## 예술 그 너머 휴머니즘 쫓은 영원한 ‘카메라의 램브란트’

최민식 사진작가는 1928년 3월 6일 황해도 연안에서 태어나 2013년 2월 12일 85세 일기로 대연동 자택에서 작고하였다. 그의 꿈은 화가였는데 고학으로 그림공부를 서울과 일본에서 하였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육군철도연대에서 공을 세워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그는 미술을 더 공부하고자 일본으로 건너가 고학으로 도쿄중앙미술학원에 다니다가, 동경의 한 책방에서 에드워드 스타이켄(Edward Steichen)이 세계 273명 작가의 사진 503장으로 편집한 인간가족(The Family of Man)에 매료되어 독학으로 사진을 공부하였다. 1957년에 그는 몇 대의 카메라를 숨겨 밀항으로 귀국하여 본격적으로 작품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하였다. 그가 사진의 소재로 한 것은 전쟁 중의 아이, 주름이 많은 노인, 자갈치 상인 등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삶과 그들이 사는 현장을 찍었다. 그것은 부친이 그에게 선물했던 가난한 농촌의 삶을 그린 밀려의 화집(薈集)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그는 인간의 위대함을 느끼고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촬영하여 만든 1968년 사진집 ‘인간 1권’을 출간한 이후 14권까지 출간하였다. 2008년에는 자신의 사진 원판 10만 여장 등 13만 여 점의 사진을 국가기록원에 기증하였는데, 그것은 ‘민간 기증 국가기록물 제1호’로 지정되었다. 세인들은 평생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 50여 년간 사진을 찍은 그를 ‘인간을 찍은 휴머니스트’, ‘카메라의 램브란트’, ‘거지 작가’라고 불렀으나, 누구나 다 그를 한국의 최고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라고 칭송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으리라.

그는 자신의 사진을 ‘낮은 데로 임한 사진’이라고 자평하였다. 그는 사진이 그림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얼굴 표정 하나 하나, 인간에게 나타나는 고뇌의 순간까지 포착하면서 인간의 내면, 어두운 삶에 대한 고발을 미학으로 표현하였다. 그는 ‘종이 거울 속의 슬픈 얼굴’에서 ‘나는 사진을 통해 좀 더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휴머니즘적인 정의 사회를 만들어 보려는 신념이다. 아

앞으로도 그렇게 나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것이 외로운 길일지라도...’라고 하였다. 또한 ‘사진은 사실’이라라는 그가 남긴 명언이 인상 깊다.

그는 ‘카메라는 단순히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분명히 드러내어야 하고, 주제의식과 목적성이 뚜렷하게 설정되어야 하고, 작가 자신의 의식과 삶과 예술을 현실 속에서 일치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사진의 본질적 의미와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였다. 그의 사진은 1962년부터 대만국제사진전에 출품하여 입선, 1966년 ‘US카메라’에서 입선, 프랑스 피냐사진전에서 명예상 등 1987년까지 해외에서 220점 입선하였으며,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지에 초청을 받아 개인전을 열었다. 또한 1967년에 부산시문화상, 1974년 한국사진문화상, 1987년 예술문화 대상, 2000~2001년 대한민국 육군문화훈장, 2008년 국민포장, 2009년도 부산문화대상 등 수많은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최민식 작가는 당대의 최고의 사진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진에 대하여 겸허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였다. 그의 작품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부산남구신문에 연재되어 남구인들의 문화에 대한 의식을 올리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작품 중 일부는 아이들의 작은 공간에 전시되고 있으나, 그가 평생 남구에서 생활하였건만 이 지역에 50여 년간 사진을 찍은 공간이 없다는 것이 유감스럽다.

그는 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인간을 위해 사진을 찍었는데, 그의 삶도 자신의 사진과 닮아 있다. 한국의 최고의 대가라고 하지만 평생 가난하였으며, 남구도서관이 있는 산골짜기와 대연천 주교회당 근처에 갈나무가 있는 1층 단층집에서 살았다. 그곳에서 사진의 소재를 찾아 광마른 노구에도 천직인양 카메라를 놓지 않고 사진을 찍다 세상을 떠나셨다. 남구 지역에 ‘주름진 노인의 얼굴이나 자갈치 풍경’과 같은 그의 작품이 항상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한다.

공기화(부산고대 명예교수)



## 주민자치회 프로그램과 함께합시다

구분	프로그램명	운영요일	시간	접수	문의처
제1회	서예교실	월, 금	10:00~12:00		대기자접수 607-6602
	컴퓨터교실	수, 목	10:00~12:00		
	양재출판교실	화	10:00~13:00		
	컴퓨터교실, 대연2동사	월, 수	10:00~12:00		
	요가교실(초급)화, 대연2동사	화, 목	11:00~12:00		
	요가교실(중급)화, 대연2동사	화, 목	10:00~11:00		
	어르신한글교실, 대연2동사	월, 화	15:00~16:30		
	중국어교실, 대연2동사	수	10:00~12:00		
	노래교실, 대연2동사	수	13:30~15:30	수시	
	생각을키우는 창의논술NIE	수	15:00~17:00	수시접수	
제2회	한국무용	수	10:30~12:30	수시접수	607-6642
	풍물교실	화	10:00~12:00	수시접수	
	한지공예	수	10:00~12:00	수시접수	
	노인강좌	목	13:00~17:00	수시접수	
	스포츠탈스	화, 금	20:00~21:00	수시접수	
	생활영어교실(초급)	수	10:00~12:00	수시접수	
	생활영어교실(중급)	월	10:00~12:00	대기자접수	
	단요가(초급)	월, 목	11:00~12:00	대기자접수	
	단요가(중급)	화, 금	09:30~10:30	대기자접수	
	단요가(심인)	월, 수	20:00~21:00	수시접수	
제3회	월어민 중국어교실(초급)	금	13:00~15:00	대기자접수	607-6765
	월어민 중국어교실(중급)	목	10:00~12:00	대기자접수	
	서예교실	화	14:00~16:00	대기자접수	
	산악초 및 발효식품	월	14:00~16:00	대기자접수	
	문인화교실	목	14:00~16:00	대기자접수	
	서예한자교실	월	10:00~12:00	월 5,000원	
	문인화교실	화	13:00~15:00	월 5,000원	
	컴퓨터교실	화, 목(2개월)	10:00~12:00	월 5,000원	
	다함께 하는 영어교실	수	11:00~12:00	월 5,000원	
	풍물교실	수	14:00~16:00	월 5,000원	
제4회	월빙노래교실	금	10:00~12:00	월 5,000원	607-6785
	요가교실(초급)	목	10:00~12:00	월 5,000원	
	요가교실(중급)	화	10:00~12:00	월 5,000원	

구분	프로그램명	운영요일	시간	접수	문의처
제1회	스포츠탈스	월, 수	11:00~12:00	수시접수	607-6688
	어르신건강체조(초급)	월, 수	15:00~16:00	"	
	어르신건강체조(중급)	월, 수	13:30~14:30	"	
	문인화	목	10:00~12:00	"	
	풍물교실	수	10:00~12:00	"	
	어르신한글교실	월, 금	14:00~16:00	"	
	창의논술NIE	화	16:00~18:00	"	
	어린이한국사	수	16:00~18:00	"	
	생활과학교실	목	15:00~16:30	6개월 단위로 접수	
	넌디디야 일본어	금	10:00~12:00	"	
제2회	한국무용	목	14:00~15:00		5,000원 607-6705
	요가 A	월, 수	09:00~10:00	상시 접수(선착순)	
	요가 B	월, 수	10:00~11:00		
	S라인 만들기 발리댄스	월, 수	11:00~12:00		
	신나는 노래교실	목	13:00~14:30		
	한지공예	월, 수	13:00~14:30		
	컴퓨터(중급)	월, 금	14:00~16:00	접수대기	
	월어교실(초급)	화, 목	10:00~11:00	접수대기	
	월어교실(중급)	화, 목	11:00~12:00	상시모집	
	문인화교실	화	14:00~16:00	접수대기	
제3회	요가교실	화, 목	11:30~12:30	상시모집	72월당 휴관(단, 생활과학교실 제외) 607-6722
	어린이 생활과학교실	수	16:20~17:50	마감	
	어린이 토요스포츠탈스	토	10:00~12:00	상시모집	
	컴퓨터교실(초급반)	매주 수, 금	14:00~16:00	대기자 접수	
	풍물교실	매주 월, 목	15:00~17:00	가능	
	문인화교실	매주 수	10:00~12:00	가능	
	한지공예교실	매주 화	10:00~12:00	가능	
	어르신 노래교실	매주 금	14:00~16:00	가능	
	썬디도서관 도서관대	매일	09:00~18:00	가능	
	요가 I	월, 수	11:00~12:00	접수마감	
제4회	요가 II	화, 목	11:00~12:00	접수마감	607-6745
	꽃꽂이	화	14:00~16:00	접수중	
	신나는 건강댄스	월, 수	10:00~12:00	접수마감	
	수지집	수	10:00~12:00	접수중	
	월랑! 오카리나	수	14:00~16:00	접수중	
	체력단련실	월~금	06:00~20:00	접수중	
	서예교실(초급)	화	10:00~12:00	연중	
	서예교실(중급)	목	10:00~12:00	연중	
	생활영어교실(성인)	금	10:00~12:00	연중	
	생활사주교실	화	15:00~17:00	연중	
제5회	풍물교실	수	10:00~12:00	연중	607-6785
	민요교실	금	14:00~16:00	연중	

구분	프로그램명	운영요일	시간	접수	문의처
제1회	요가 교실(동주민센터 2층)	화, 목	10:00~12:00	동주민센터	607-6802
	요가 교실(현대파크관리실 지하2층)	화, 목	10:00~11:00	"	
	풍물교실(동주민센터 2층)	월, 금	10:00~12:00	"	
	영어교실(동주민센터 2층)	화, 목	14:00~16:00	"	
	스포츠탈스(석포머우 1층 가사실)	월, 수	10:00~12:00	"	
	사물놀이	매주 월, 수	14:00~16:00	접수완료	
	서예교실(초급반)	매주 월	10:00~12:00	접수완료	
	단학교실(초급반)	매주 월, 금	10:00~11:00	접수완료	
	단학교실(중급반)	매주 월, 금	11:00~12:00	접수완료	
	요가교실	매주 화, 목	10:00~11:00	접수완료	
제2회	노래교실	매주 화	10:00~12:00	접수완료	607-6826
	생활영어	매주 월	10:00~12:00	수시 모집(성인)	
	중국어교실	매주 화	10:00~12:00	수시 모집(성인)	
	노래교실	매주 화	13:00~15:00	수시 모집(성인)	
	요가교실	매주 월, 수	10:00~12:00	수시 모집(성인)	
	스포츠탈스	매주 화, 금	10:00~12:00	수시 모집(성인)	
	하모니카 교실	매주 목	10:00~12:00	접수 완료	
	역사논술교실	매주 토	10:00~12:00	접수 완료	
	체력단련실	월~금, 토	06:00~20:0009:00~17:00	수시 모집(성인)	
	어린이 영어	매주 화, 목	16:00~18:00	수시 모집(초등3~5년)	
제3회	생각영어 논술교실	매주 화	15:00~16:30	수시 모집(초등3~5년)	607-6842
	추산양산교실	매주 화	14:00~16:00	접수중	
	요가교실	매주 수, 금	12:30~13:30	접수대기	
	스포츠탈스	매주 수, 금	14:00~15:00	접수중	
	생활대전체조	매주 수, 금	15:30~16:30	접수중	

구분	프로그램명	운영요일	시간	접수	문의처
제1회	서예교실	매주 월	13:00~15:00	접수중	607-6876
	노래교실	매주 목	13:30~15:30	접수중	
	건강노래교실	매주 수	10:00~12:00	접수중	
	건강영어로비	매주 화, 목	09:20~10:20	접수중	
	건강 요가교실	매주 화, 목	10:30~12:00	접수대기	
	어린이일문어교실	매주 토	10:00~12:00	접수중	
	체력단련장	매주 월~금, 토	07:00~20:0009:00~17:00	접수중	
	문인화교실	월	10:00~12:00	방문	
	미용사자격증반	화	10:00~13:00	방문	
	단학교실(생활영어)	화, 목	14:00~15:00	방문	
제2회	컴퓨터교실(중급)	수, 금	10:00~12:00	방문	607-6902
	생활양재교실	목	10:00~13:00	방문	
	스토리텔링과 글쓰기교실	화	15:00~17:00	방문	
	요가교실	수, 금	10:00~12:00	접수중	
	노래교실	월	10:00~12:00	접수중	
	서예교실	화, 금	14:30~16:30	접수중	
	문인화교실	월	14:00~16:00	접수중	